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 (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8일(월) 시의회 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주민 사이의 갈등, 동물 학대가 유기 등의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시에 유기되어 공공동물보호소로 입소되는 동물만 매년 4,500

마리 정도다. 입소동물 중 절반 이상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고 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동물복지 문제를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 대구시의 동물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가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유실·유기동물문제, 동물학대, 동물보호업무



인력부족 등 개선과제들을 발표했으며, 토론회를 제안한 윤권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윤권근 의원은 "토론회가 대구시 동물단체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

대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자로 참석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고, 대구가 유기동물 발생비율은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이 44.1%로 2022년 기준 전국평균 29.8%인데 대구는 1.5배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임미연 달서구의원, 이준호 수성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 박준서 대구수의사회장, 임규호 (사)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김종오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이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세경 객원기자



대구광역자활센터 '청년 레벨업 프로젝트' 업무협약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는 지난 11일(목) 대구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청년센터(센터장 오창식), 월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흥렬),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관장 이준기)과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대구광역자활센터>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숨쉬는 순두부 다사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4길 14(매곡리 257-2)
문의 ☎0507-1374-0896

국내산 100% '순두부' 건강한 한 끼



'숨쉬는 순두부'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순두부 맛집이다.

아파트 밀집된 곳에 있어 주차공간이 넓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국내산 100%로 두부를 만들고 있으며, 요즘 국내산 100% 두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부는 깔끔하고 넓은 편으로 아기의자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

오픈 시간부터 손님이 있지만, 회전율이 높아서 웨이팅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두부의 맛은 콩이 결정합니다" 두부의 고소함은 혀끝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주문하기 전 자리에 앉자마자 두부를 내주시는데 매일 아침 오픈전만드는 두부라고 한다. 이 두부

는 건강 순두부라고 따로 판매도 한다고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에 간장을 얹어 먹어보면 고소하다.

밑반찬으로는 여러 가지 반찬이 간도 짜지도 않고 집밥처럼 정갈하게 나온다. 다 먹으면 물론 리필도 가능하다.

메뉴판은 테이블 옆쪽 고리에 걸려있다. '숨쉬는 순두부' 다사점의 세트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10%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여러 명이 갈 때는 세트 메뉴로 주문하는 게 경제적이다.

라드유로 볶아 풍미 가득 맛있는 돼지두부두루치기. 오삼두부두루치기가 있고 매일 삶는 수육은 두부, 무, 보쌈김치, 깻잎과 환상의 조합이다.

술밥은 2,000원 추가하면 공깃밥

에서 술밥으로 변경해 주신다. 영덕 대게장순두부, 해물순두부, 김치순두부, 짬뽕순두부, 굴매생이순두부는 가격이 8,500원이다. 찌개만 먹기 조금 부족할 때는 4,000원 추가 하면 보쌈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콩국수가 별미다. 두루치기는 돼지고기와 양배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양념이 남아 공깃밥 하나 추가해 꼭 비벼 먹어 보길 바란다.

반찬에 술밥, 맨밤에 콩비지랑 먹어도 최고!! 그냥 공깃밥까지도 맛있는 청결하고 친절한 다사맛집 '숨쉬는 순두부' 다사점 좀 꼭 한번 방문해 보길 바란다.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9시
장미경 객원기자